

# 전남교육청, “글로벌교육으로 ‘전남교육 대전환’ 실현”

### 교육감 시정연설 통해 ‘지방시대 대전환 이끌 원년’ 의지 천명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등 실천적 비전 제시

전라남도교육청이 2024년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교육으로 시대적 과제인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김대중 교육감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를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넘어 지방시대 대전환을 이끌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글로벌 교육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를 통해 지역이 곧 세계이고, 세계가 지역인 ‘글로벌 교육의 실천적 모델’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글로벌 교육’ 실현을 위한 3대 역점과제로 △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맞춤형 교육 △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글로벌 교육을 내세웠다.

그 실천 방안으로는 첫째, 공부하는 학교 육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AI·에듀테크 활용,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등 학교 현장의 자율성에 기반한 수업 대전환을 통해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고, 진로·진학·취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둘째,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통합적 사고력과 다양성을 키우는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강화와 공생의 환경생태 교육 내실화, 다문화 교육 여건 개선 등의 실천 과제도 구체화했다. 특히, 지역산업과 공생하는 다문화 교육 모델로 (가칭)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을 2028년 3월 개교 목표로 적극 추진키

로 했다.

셋째, 지역 중심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는 ‘글로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넷째,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 아래 스마트하고 안전한 교육 여건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능형 JNE 챗봇 운영과 학교지원센터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학교별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학교회계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의 이런 계획은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 의존적 태도에서 탈피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김대중 교육감은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저출생 및 지역소멸 위기와

관련해 국가적 어젠다로 부상한 돌봄과 학생수당, 글로벌 교육에 전남교육이 가장 먼저 나선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며 “올해는 지역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미래교육을 통해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김희면기자

## 장성외국어체험센터,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Winter English Camp’ 운영 ‘큰 호응’ 얻어



준에 맞는 교재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년군별 수준에 맞추어 원어민 교사와 내국인 강사의 협력 수업으로 모든 학생이 즐겁게 참여하도록 하였다. 특히 여러 가지 게임과 스포츠를 통해 교사-학생간의 유대감 형성과 함께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및 어휘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Winter English Camp’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장성성산초 김\*\* 학생의 학부모는 “지난 여름 Summer English Camp에 참여하여 아이의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아이가 좋아해서 이번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선생님과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캠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성교육지원청 김진홍 교육지원과장은 “장성외국어체험센터는 방학중 영어캠프 프로그램과 방과후, 주말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관내 초등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영어체험학습을 위해 힘쓰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장성=김수권기자

장성외국어체험센터에서는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양)의 지원아래 올 겨울 방학에도 장성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5(월)부터 2주동안 방학 중 ‘Winter English Camp’를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Mythology(신화)”라는 주제 아래 펼쳐지는 이번 캠프에는 각 학교로부터 추천받은 8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원어민 교사 2인을 포함하여 다섯 명의 교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겨울방학 영어캠프 프로그램은 여러 나라의 신화와 전설들 그리고 신비한 마법과 환상의 세계를 스토리텔링, 스포츠, 게임, 크래프트와 쿠킹 수업으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Winter English Camp’에서는 학생들의 수

## 전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독도는 우리 땅’ 주제로 독서교실 진행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김광일)은 겨울방학을 맞아 여수 지역 초등학교

### 겨울방학 맞아, 여수 지역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4~6학년을 대상으로 23일(화)부터 26(금)까지 4일간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초등학생 33명이 참여한 이번 독서교실은 ‘독도는 우리 땅’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 및 독후 활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독서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독도 관련 도서를 읽고 ‘독도가 우리 땅인 10가지 이유’, ‘해외에 독도를 알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등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토론 활동을 하

면서 표현력과 자신감을 높인다. 또한 퀴즈 및 게임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의 소중함과 그 가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미라 총무부장은 “겨울방학 동안 독서교실의 다양한 독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책과 친숙해지고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 광양도서관, ‘틈만 나면’ 그림책 원화 전시 개최

광양도서관(관장 심상미)은 1월 9일부터 31일까지 ‘갤러리 희망’에서 ‘틈만 나면’ 그림책 원화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 도서인 ‘틈만 나면’은 이순욱 작가가 쓰고 그린 그림책으로, 여러리만 험한 생명력을 가진 작은 들꽃의 이미지를 통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며, 장면마다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의 그림들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

다. 더불어, 광양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갤러리 희망 전시회를 공개 모집하여 개최하고 있다. 1월 23일부터 2024년 갤러리 희망 전시 개최를 위한 전시 참여자를 모집하며, 전시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개의 전시회를 선정하여 3주간 전시할 예정이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